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7. 19.(수) 11:00 < 7.20.(목) 조간 > 배포 2023. 7. 19.(수)

신진연구자 키우기 위한 방안 찾는다

- 산-학-연 신진연구자와 간담회 개최해 정책 수요 발굴
- ‘연구개발(R&D) 제도 개편 ‘기업연구자 처우 개선 위한 법률 제정 추진

정부가 신진연구자 양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제도 개편, 법률 제정 등 정책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7월 19일(수) 대학 석·박사 과정생, 기업·대학·출연연 청년연구자와 간담회를 열어 신진연구자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젊은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기범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우리 대학에서 석·박사과정 학생의 재정 지원 대부분을 교수연구비에 의존하고 있어 석·박사생의 기본 생활비는 현저히 부족하고 교수는 소모적인 과제 수탁경쟁에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대학원생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비 지원 경로를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최민철 연구위원은 기업연구자의 대다수(85%)가 연구성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결과를 밝히며, 기업연구자의 경제적 처우 강화, 사회적 명예·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확대, 지원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꺼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세계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산업부는 연구개발(R&D)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신진연구자의 도전적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연구자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스탠퍼드 등 미국 유수 대학·연구소에 파견하여 세계 최고 수준 연구자로의 발돋움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연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 권 (044-203-4540)
		담당자	사무관 이보라 (044-203-4511)
			사무관 김상운 (044-203-45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간담회 개요

□ 목적 : 신진연구자들의 R&D 참여기회 확대, 연구환경 개선 관련 애로사항 청취·개선 방안 논의

□ 일시/장소 : 7월 19일(水) 15:00~17:00 /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산업부 1차관 ‘신진연구자(석·박사과정 연구생, 기업·대학·출연연 연구자) ‘유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전략기획단)

□ 내용 : ❶ 발제
- 석·박사 지원현황 및 개선 제언(박기범 STEPI 선임연구위원)
- 신진 기업연구자 애로사항 조사결과 및 개선방향 (최민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❷ 자유토론

□ 세부 일정

< 세부 일정 >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05	5′	모두 발언	산업부 1차관
15:05-15:20	7′	(발표1) 석·박사 지원현황 및 개선제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	(발표2) 기업연구자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산업연구원
15:20-16:50	90′	(토론) 애로사항 청취 및 제언	참석자 전원
16:50-16:55	5′	마무리 발언	산업부 1차관